

# 열정의 지역 작가들 독창적 미디어아트 꽃피우다



광주 지역 미디어아트작가들은 초창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다. 박상화 작 '무등 판타지아-무등원경 원림' (위), 진시영 작 '나주 금성관 미디어 파사드' (왼쪽), 이이남 작 '상상된 경계들'.

광주가 2014년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데는 풍부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존재도 큰 역할을 했다. 국내 미디어아트 분야 역시 다른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광주 지역의 경우 거의 독학으로 작업을 하는 등 초창기 불모의 땅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활동을 해온 작가들이 있었다.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의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광주'에 비치된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에 생소한 미디어 아트가 첫 등장한 건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고인돌'이 1995년 제 1회 비엔날레에 전시되면서다.

광주 지역 작가들이 공식적으로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 건 2002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기념전 '깊은 산중에서 소를 잃다'로 박상화·오이랑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가던 작가들은 2004년 영상 그룹 'View', 2005년 영상설치그룹 'MDMI' 창립전 등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지역의 미디어아티스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LED, 레이저, 빔 프로젝터, 3D 프린터 등 뉴미디어와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며 독창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는 동서양 고전정화를 디지털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주목 받은 이이남 작가의 활동이 눈에 띈다. 국내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그는 올해도 브라질, 영국,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그룹전과 개인전을 개최하며 기타리스트 전장수씨와 카네기홀 무대도 앞두고 있다.

최근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융·복합 레지던스 스튜디오 '뉴폼스 (NEW FORMS)'를 오픈한 진시영 작가는 무용 등 다원 예술 프로젝트 팀 '씨클'을 만들어 다양한 융복합 공연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또 광명동굴 '빛의 페스티벌'에 전공인 미디어

## 광주, 미디어아트 도시를 꿈꾸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래

<3> 광주의 미디어아트 작가들

2002년 첫 작품 선보이고 영상그룹 'View' 등 등장

컴퓨터·레이저·3D 프린터 등 뉴미디어·첨단 기술 활용

이이남·진시영·이조흠·손봉채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

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운학 작가는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담양담빛장고 등에 설치된 '빛의 열매' 시리즈 등 LED를 기반으로 작업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봉채 작가는 빛과 폴리카포네이트 방탄 유리를 활용해 공원적인 입체 풍경을 만들어낸 작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또 회화 작업을 하다 한지와 LED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정선휘 작가도 지역 미디어 아트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융합그룹 '비빔밥' 등에서 활동한 박상화 작가는 'View'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미디어아트 초창기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며 '하이힐'로 유명한 이이남 작가 역시 '시배달' 등 다양한 영상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 광주기틀 리빙교육원 지하 공간 등 버려진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신도원·펑크파마·Lele Huang로 구성된 그룹 '미디어 엑스'의 '문명'.

는 권승찬 작가의 행보도 눈에 띈다.

신도원 작가는 펑크파마, Lele Huang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 엑스'팀을 이끌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양기영 레빙에서 열린 '뱅크 뉴메르크 제10회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 공모에 선정돼 현장에서 통합퍼포먼스 융합공연 '문명'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밖에 안유자·나명규·정기현·방우송 작가 등도 지역 미디어아트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이조흠·김명우·박세희·김자이 등 젊은 작가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특히 임용현, 풀바자, 이성용, 신창우로 구성된 '빅풋'은 '따로 또같이' 활동하며 재기 발랄한 작품들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미술의 축제'의 장인 광주비엔날레는 지역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시영·손봉채·김명우·이조흠·정기현 등 많은 작가들이 본전시, 특별전, 포토폴리오 공모 등 다양한 장구를 통해 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2018비엔날레에서는 이이남 작가가 개막식 당시 '상상된 경계들'을 모티브로 주제 공연을 선보인 후 작품을 전시중이며 박상화 작가는 주제전에서 '무등 판타지아'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또 박세희 작가 역시 참여작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이남 작가는 헬싱키 국제아티스트 프로그램이 기획한 파빌리온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7기를 모집한 미디어아트 레지던시와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전시하는 미디어338의 존재와 해마다 열리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미디어아트 토양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열린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행사 모습.

## 7번째 축제, 기간 늘리고 더 풍성해진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11월 28일~12월 7일 개최  
문화전당 초대형 스크린 활용  
전국 영상작 프리뷰 전시도

지난 2012년, 어둠이 내린 광주 시내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벽면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변화무쌍한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은 색다른 경험을 전했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출발이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가입을 준비중이던 광주시는 당시 미디어 아트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축제를 기획했고 2014년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행사를 치렀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진시영·이이남·정운학·백종욱·신도원 등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와 기획자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행사를 진행해왔다. '빛과 사람', '미래의 빛', '빛과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행사의 예산은 1억8000만원~2억원 수준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기존 행사와 몇가지 차별점을 보인다. 우선 행사 기간이 11월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처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2관과 전당의 초대형 스크린 미디어 월(75m×16m)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밖에 11월중 서울, 부산, 광주에서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영상 작품을 미리 감상할 수 있는 프리뷰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원준 미디어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대표가 총괄 디렉터를 맡은 올 행사 주제는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문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일요일은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정 모시겠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